

평창올림픽 | 남북 공동입장의 역사



2000년에 열린 호주 시드니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고 있다. 당시 여자 기수는 남측 정은순, 남자 기수는 북측 박정철 유도 감독이었다. 남북은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다. 스포츠동아DB

평창서 한반도기 휘날리며... 11번째 공동기수는 '남남북녀'

스토리 올림픽

진통 끝에 2000년 시드니올림픽서 첫 성사
2006년 토리노 이어 동계올림픽선 2번째
기수는 남·북 교대... 이번엔 남남북녀 차례

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선 역대 11번째로 남북 공동입장이 성사된다.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 공동기수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동·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스포츠대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한 최초의 사례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뒤 2002년 부산아시아대륙경기, 2003년 아오모리동계아시아대륙경기와 대구세계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5년 마카오동아시아대륙경기와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과 도하아시아대륙경기, 2007년 창춘동계아시아대륙경기로 그 명맥이 이어졌다. 평창에선 동계올림픽으로는 2번째, 국내 개최 대회로는 4번째로 남북 공동입장이 이뤄진다.

첫 공동입장이었던 시드니올림픽을 살펴보면, 역시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이은 6·15 공동선언의 영향으로 남북관계에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9월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이 추진됐다. 중재자이자, 최종 승인권자였던 국제올

림픽위원회(IOC)도 남북의 올림픽을 통한 화해·협력에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9월 13일에는 남북 각 90명씩, 총 180명의 개회식 공동입장 인원이 결정될 정도로 남북과 IOC가 막판까지 삼각협상을 이어갔다. 개회식에 사용할 깃발을 놓고도 IOC는 애초 한반도기가 아닌 IOC기를 고수했다. 결국 진통 끝에 남측 정은순(여자농구)-북측 박정철(남자유도·감독)의 '남녀북남(男女北南)' 공동기수가 한반도기를 함께 들고 개회식장으로 들어섰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평창에선 남남북녀(南男女北女)로 구성된 공동기수가 등장할 차례다. 지금까지 '남녀북남'과 '남남북녀'를 교대로 공동입장을 진행해왔는데, 마지막 공동입장이

었던 창춘동계아시아대륙경기 때는 남한 오재은(여자스키)-북한 리금성(남자아이스하키)이 공동기수로 나섰다. 이 같은 전통을 잇는다면 평창에선 남남북녀의 공동기수가 한반도기를 들어야 한다.

동계올림픽에선 최초의 공동입장이었던 토리노대회 당시에는 남한 이보라(여자스피드스케이팅)-북한 한정인(남자피겨스케이팅)이 공동기수를 맡았고, 남북 선수단 56명(남 44·여 12명)이 한반도기를 앞세워 개회식장을 행진했다. 남북 선수단은 총 82개 출전국 가운데 21번째로 입장하며 3만5000여 관중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았다.

공동기수가 들어올릴 한반도기는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던 1991년 4월 제41회 세

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지바) 때 탄생했다.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새겨진 이 깃발은 그해 6월 포르투갈에서 펼쳐진 20세 이하(U-20) 세계청소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으로도 계승됐고, 이후 남북 공동입장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깃발로 휘날렸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선수단 규모와 개회식 참석 인원, 경기 및 국가연주 등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열린 남북 체육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회백), 양측 올림픽위원회와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정은순 '첫 남북 공동기수의 추억'

평창 공동 입장 확정에 외신들 관심
"선수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한국여자농구 전설 정은순(47) KBSN 농구해설위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가 부쩍 늘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까지 인터뷰에 나선 정도다.

정 위원은 17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KB스타즈의 경기 해설을 맡았는데, 그와의 인터뷰를 위해 프랑스 민영방송 CANAL 플러스에서 현장을 찾아오기도 했다.

2018평창올림픽은 최근 북한이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고 개회식에는 남·북한 동시 입장이 확정됐다. 최근 정 위원에게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남·북한 동시 입장 때문이다.

남·북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을 한 바 있다. 정 위원은 당시 남측의 기수였다. 그는 "올림픽 기수를 한 덕분에 요즘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다"며 웃었다. 당시 선수 정은순은 남북 공동입장을 앞두고 "결혼식 때보다 더 떨릴 것 같아요. 박 감독님 때문에 낮은 구두를 신어야 했어요"라고 인터뷰에서 농담 삼아 말해 화제가 됐다.

시드니올림픽 때 북측의 기수 파트너는 유도의 박정철 감독이었다. 그가 선정된 이유는 북한 선수단 가운데 최장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은순보다 9cm나 키가 작았기에 정은순은 이 같은 농담을 던지면서도 굴러들어온 뜻밖의 행운에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당시 매스컴은 보도했다.

남북 동시입장이 전격 합의되는 바람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배우선수 김세진이였다. 당초 대한민국 팀의 기수로 결정됐던 김세



남북 선수단이 동반 입장한 2000시드니올림픽에서 한국의 기수로 참여한 '여자농구 레전드' 정은순은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입장 결정과 맞물려 국내외 매체들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다. 17일 프랑스 방송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 윤인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진은 전격적인 남북 공동입장에 밀려 선수생활 최고의 영광이 될 순간을 놓쳤다. 반면 정은순은 "역사적인 올림픽에서 남북화합의 상징인 한반도기를 마주 들게 된 것을 지금까지 대표생활 최고의 행운"이라고 표현했다.

과거의 추억 속에서 정은순은 그동안 숨겨놓았던 에피소드도 이번엔 소개했다. 정 위원은 "처음에 기수 제안이 왔을 때 안 하려고 했다. 개막식 다음날 폴란드와의 조별 예선전이 있었다. 경기 일정 때문에 원래 여자농구대표팀은 개막식 행사에 안 나가는 거였다. 그런데 내가 기수로 나가면 단체로 개막식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이어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때 대표팀을 맡았던 우수중 감독님이 '은순아, 그냥 좀 하지?' 라고 한마디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시드니올림픽에서 여자농구대표팀은 당초 예상을 깨고 4강에 진출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당시 여자농구대표팀의 선전은 아직까지도 농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다. 정 위원은 "시드니올림픽은 선수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그런데 그 때 남·북 공동입장 때 기수를 해서 지금 또 다시 관심을 받으니까 감회가 새롭다. 시드니올림픽은 여러모로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누구를 위한 남북 단일팀인가

(여자아이스하키)

20일 IOC서 엔트리 등 가이드라인 결정
일방적으로 진행된 단일팀 '상처투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인데, 이들은 어떠한 인질도 받지 못한 채 소위 '통보'를 받은 것이다.

정부는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쳤다. 단일팀이 출범하는 종목은 여자아이스하키다. 올림픽 출전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 북한 선수 일부가 합류하는 방식이다.

이제 단일팀 출범의 최종 공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 넘어갔다. 20일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이 결정되게 된다. 우리 대표팀은 18일 오전 엔트리 23명을 먼저 확정했다.

엔트리가 얼마나 늘어나고, 또 몇 명의 북한 선수가 합류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 때문에 단일팀의 미래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단일팀 구성의 진행 과정이다.

● '뉴스'를 통해 단일팀 소식을 전해들은 대표팀

정부가 북한에 처음으로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것은 지난 9월에 열렸던 남북고위급회담이다. 당초 피겨 단일팀이 꾸려진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우리 정부가 선택한 종목은 여자아이스하키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 쓸쓸한 뒷맛이 남았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 감독은 단일팀 구성에 대한 소식을 그 사이 전혀 듣지 못한 것이다. 세라 메레리(30) 감독은 16일 입국 기자회견에서 "단일팀 이야기를 이틀 전(14일)에 들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매우 큰 충격이다"고 말했다. 단일팀이 구성되고 북한 선수들이 합류하게 되면

● "전력 오히려 보강돼" "메달권 종목 아니다" 상처투성이 대표팀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곧바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올림픽을 정치논리로 이용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의 시선이 뜨거워졌다.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일제히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해피엔딩만 되었는데 국민 여론은 더욱 더 들끓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기력은 비슷하다. 오히려 북한의 우수한 선수를 참가시키면 전력은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단일팀 구성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짚지 못하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이날엔 국무총리는 같은 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자아이스하키가 메달권 종목은 아니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 피파 출신 선수들의 노고는 일순간에 훼손됐다.

정부는 줄곧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은 것"이라는 '미래형'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선수들은 이미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상처는 지금도 계속 깊어지는 중이다. 관련부처 누구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성급했다. 대표팀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데, 부디 이해해달라"는 말만 했어도 국민여론이 지금 이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